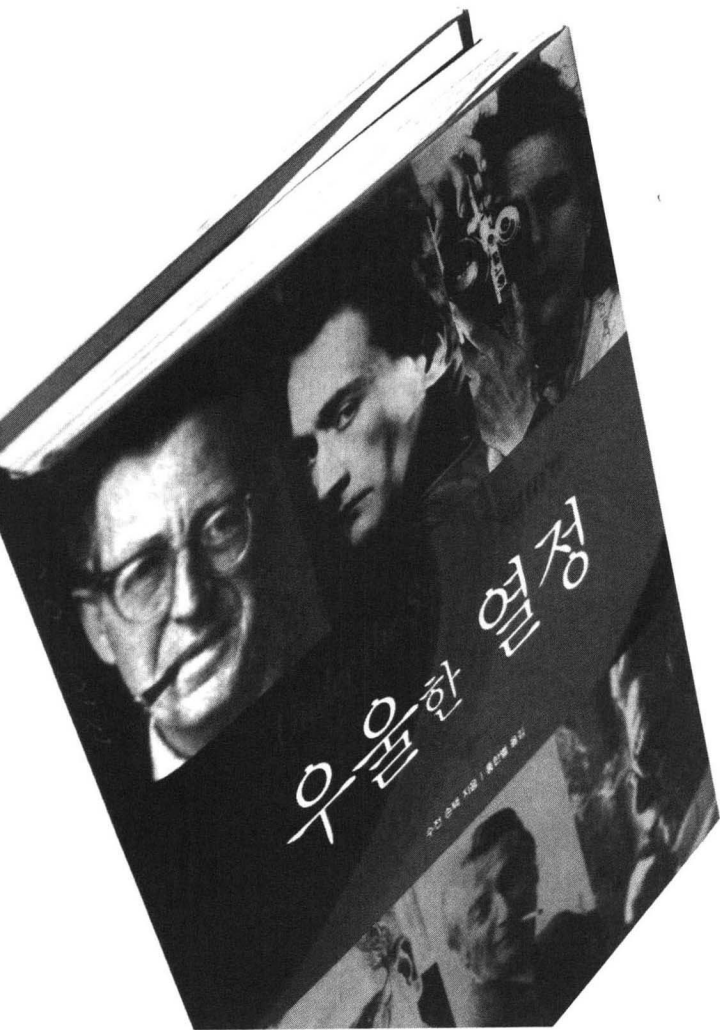


삶, 텍스트, 이론 경계를 허무는 비평의 창조력

수전 손택의 《우울한 열정》



수전 손택 지음 | 홍한별 옮김 | 서울 | 262쪽 | 값 16,000원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현대'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비평은 영원한 추임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비평가는 판에 '대한' 추임새가 아닌 판을 짜고 판을 벌이는 판 자체의 창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단지 문학, 영화, 연극, 미술 등 그 모든 예술의 '판'을 숙주로 삼지 않는다면, 비평은 성립할 수 없는 걸까. 비평은 선행된 텍스트라는 타자가 없이는 절대로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뒤통수를 무겁게 할 때마다 스무 살에 들었던 어떤 문학 수업의 기억이 새삼스럽다. 선생님은 비평가란 완전한 작가도 완전한 이론가도 될 수 없는 틈새적 존재임을 일깨우셨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이론가보다 명철할 수도 없고 작가처럼 창조적일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그러나 문학에 대한 못 말리는 의사량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선택한 길이 비평가인 듯 말씀하시곤 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관찰한 후 스스로에게 이론적 감식안과 예술적 감수성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당장 문학 따위는 때려치우라는 그 서슬 퍼런 호통조차 아릿한 슬픔과 함께 감미로웠다. 나는 비평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가능성도 없다는 절망은,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그 짜릿한 호통으로 인해 거짓말처럼 치유되곤 했다. 그분이 김윤식 선생님이셨다.

결코 살아서는 볼 수 없는 분이셨지만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스승은 김현 선생님이다. 내가 김현 비평을 처음 맛본 것은 이미 선생께서 세상을 등지신 뒤였다. 비평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말갭게 미련하게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김현 비평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따끔한 주사처럼 아프지만 경이로운 치료제였다. 김현 비평은 텍스트에 '대한' 뒷북만이 비평이 아니라, 비평이 홀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에세이가 될 수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했다는 점에서 비평의 혁명적 기원을 열었다. 그의 비평은 '작품 없는 비평, 대상 없는 비평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실천적 대답이었다. 그는 징글징글한 일상 속에서 심오한 비평의 주제를 이끌어내곤 했다. 그에게서 우리는 '삶=글=예술'의 세계가 눈부신 불꽃놀이로 상연되는 장엄한 풍경을 엿보았다. 텍스트 없이도, 대상 없이도, 어떤 이론적 토대에 기대지 않고도,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비평의 가능성을 김현 비평은 온몸으로 증명했다. <김현의 행복한 책읽기>는 일기처럼, 수필처럼, 편지처럼, 심지어 낙서처럼 휘갈길 지라도 쉽게 읽히면서도 깊이와 감동이 함께 깃드는 비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때로는 문학을 핑계로 삶을 이야기하는 '에둘러가기'의 달인처럼 보였고, 김현 비평의 탄생은 곧 학문과 삶의 거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글쓰기의 탄생이었다.

스무 살, 무지로 점철된 내 영혼을 향해 무지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불가능한 것을 꿈꾸지 못하는 비굴함이 진정 부끄러운 일임을 가르쳐준 글쓰기가 김윤식과 김현의 비평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비평은 '문학 동네'에서만 자폐적으로 유통될 뿐 더 이상 평론가라는 직함에 보편적인 자극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여기 우리의 비평은 왜 이토록 세상과 문학에 대한 지독한 외사랑으로 점철되고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는 비평가가 있다. 그녀가 바로 수전 손택이다. 그녀가 비평가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의 글을 보면 당최 그녀의 글은 장르를 짐작할 수 없다. 때로는 일기나 수필이나 여행기 같고 때로는 정치와 문화에 대한 예리한 칼럼 같기도 하다. 그녀의 글쓰기는 평론의 틀에 갇히지 않는, 좀처럼 평론 같지 않은, 그러나 평론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평론의 진경을 보여준다. 삶과 텍스트와 이론의 삼각지대, 이 세 가지 견고한 영토의 경계가 행복하게 허물어지는 비평. 그것이 바로 수전 손택이 이루어낸 20세기 비평의 마지막 오아시스였다.

그녀는 때로는 강렬한 마법사적 눈초리와 점쟁이적인 기질로,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이론적 토대로, 텍스트를 예리하게 베어낸다. 그녀의 평론을 이해하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지식조차 쉽게 얻을 수 있다. 수전 손택의 《우울한 열정》은 내게 단순한 예술비평 모음집이 아니라 파시즘과 대중심리에 대한 가장 명징한 이해를 가능케 했던 책이기도 하다. 그녀의 두 평론, 〈매혹적인 파시즘〉과 〈지버베르크의 히틀러〉를 통해 나는 그녀가 비평 대상으로 삼았던 작가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파시즘의 어떤 야누스적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글을 읽으면 나 역시 그녀의 삶의 과정 전체를 생생하게 호흡하는 듯한 행복한 기시감을 체험한다. 그녀가 살았던 시간과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을 그녀가 되어 만나는 듯한, 그토록 불가능한 시물레이션이, 그녀의 평론 속에서는 결코 희귀한 체험이 아니다. 그녀는 비평가이기 전에 용맹스런 투사이자 협객이었다. 그녀는 정치적 불의와 싸우는 일을 자신의 문학과 분리시킬 수 있는 영악한 트릭을 몰랐다. 그녀의 비평은 우리의 문학이 어느 순간 현실 정치와 정면으로 맞장뜨지 않았기에 끝내 대중과 일상과 세계 전체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뼈아픈 자각을 선물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수전 손택이 나를 감동시켰던 부분은 내가 한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마치 내가 직접 만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녀의 놀라운 '커플 매니지먼트' 능력이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장은 폴 굿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나로 하여금, 단지 그녀의 글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폴 굿맨을 열렬히 짝사랑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종이 위에 쓴 글은 전부 다 즐겼다. 그가 고집불통이고 어색하고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틀렸을 때조차도 나는 좋아했다. 그의 자기 중심주의는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감동시켰다.”

“특히 존경할 만한 것은 《5년간》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터놓고 밝힌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는 뉴욕 지식인계에서 이성애자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 그게 6년 전이니,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커밍아웃을 유행시키기 전이다. 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와 자신의 슬픈 성적 욕망과 시민사회에 대한 욕망을 뒤섞는 것도 좋았다.”

평생 마주칠 일 없는 머나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평론가의 글을, 이 지독한 변방의 아시아에 거주하는 한 젊은이가 읽고 세계관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평가의 가장 행복한 운명이 아닐까.

그녀의 비평은 문학뿐 아니라 대중문화, 정치투쟁, 예술 전반, 도시적 삶의 흔적, 자기 수련의 과정까지 오롯이 담겨 있는 투쟁의 기록이다. 이 책은 모든 텍스트와 결별하고 텅 빈 방 안에서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책 속에서 책 이면의 저자와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끊임없이 진실을 에둘러 말하는 완곡어법과 언어의 화장술과 마케팅의 변장술 때문에 저자의 숨은 표정과 대면하기 어려워지는 요즘. 그녀는 비록 수다스럽지도 않고, 노출증적인 욕망도 없지만, 남의 텍스트와 자기의 삶을 두루치기 하면서 그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곧 자기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한 고백이자 응시가 되는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 그녀의 비평은 텍스트의 리부인 동시에 텍스트의 창조다.

비평가의 뜨거운 감식안이 없다면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진흙이나 모래무덤 속에 감춰진 보석 찾기. 그것은 여전히 비평의 자리다. 나에게, 이제 평론은 때늦은 추임새가 아니다. 수전 손택의 글은 평론가의 나직한 추임새가 문화의 판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팽과리나 북소리가 아닌, 영화감독이나 소설가가 아닌, 비평가의 추임새 자체가 판 자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주필**